

종합상황실 · 대책반 운영

익산시, 추석명절 종합대책 '민생경제 · 방역 총력'

익산시가 고물가 대응 민생경제 안정과 코로나19 재확산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추석 연휴기간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비상대책 12개반에 1일 90여명의 공무원을 배치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시는 총괄반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대책반 △코로나19 상황대책반 △재난재해대책반 △교통종합대책반 △축산악취대책반 △산단악취대책반 △생활환경대책반 △도로대책반 △의료대책반 △상하수도대책반 등으로 구성해 대책반별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우선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성수품 등 물가

상승에 대비하여 물가 및 수급 안정관리에 총력을 펼친다.

성수품 가격동향 모니터링, 불공정 상행위 점검 등 단속을 통해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연휴기간 별도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민원에 대비한다.

또한 지역 개인서비스 물가 안정화를 위한 착한 가격업소 신규지정 확대, 고물가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한 익산 다이로움 확대 발행,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성수물품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한편 연휴기간 2년여 만에 개방된 팔봉공설묘지에 시민들의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종합대책반을 운영한다.

추석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원팔봉삼거리~한솔장례식장 구간에 교통통제 및 질서 유지에 힘을 예정이다.

또한 공설운동장에서 공설묘지 입구까지 셔틀버스 8대가 무료운행한다.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콜택시 4대가 공설묘지입구에서 정수원 입구까지 무료로 운행한다.

이 밖에도 연휴 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하수도, 생활환경, 악취 도로 상황 등 생활민원에 즉각 대처할 방침이다.

모순영 기획행정국장은 "물가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추석 연휴기간 동안 시민들의 부담감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물가 및 수급 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종 지원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는 군산새만금아카데미 제6강좌를 오는 15일 오후 7시에 꽃꽃 시인으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을 초청, '시가 사람을 살립니다'라는 주제로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시를 통해 헤아리는 삶의 지혜

꽃꽃시인 나태주, 새만금아카데미 제6강 개최

군산시는 군산새만금아카데미 제6강좌를 오는 15일 오후 7시에 꽃꽃 시인으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을 초청, '시가 사람을 살립니다'라는 주제로 군산 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강연 진행을 맡은 나태주 시인은 대중적 시인 풀꽃을 비롯해 네가 없으면 인생도 사막이다, '봄이다 살아보자' 등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시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으며,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tvN 유 퀴즈 온더 블록' 등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강의를 통해 작가의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격려,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삶의

지혜 등에 대해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김종필 교육지원과장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나태주 시인과 함께 하는 군산새만금아카데미강좌를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새만금아카데미를 통해 인문학적인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군산시 공식 유튜브 생방송 및 금강방송(KCN)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사전예약을 통하여 선착순 400명(예약전화 454-2602/ 군산시 교육지원과)에 한하여 입장 가능하다.

/군산=김판곤 기자

악취민원 '뚝' ... 정주여건 크게 개선

익산시, 악취 집중행정 결실 미원 53.7% 감소

익산시가 악취민원이 폭증하는 8월 집중적인 악취저감 행정으로 민원이 감소해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시는 여름철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노려온 결과 지난달 악취 민원이 전년 동월 대비 절반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익산악취24' 어플을 통해 집계된 민원 분석결과, 매년 악취발생이 절정을 이르는 8월에 접수된 민원은 380건으로 작년 8월 821건에 대비해 53.7%의 감소율을 보여줬다.

특히 화학악취(매캐한)냄새는 작년 134건 대비 올해 45건으로 무려 67.7%

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야간 집중단속 정책의 실효성이 입증됐다.

시는 여름철 시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심야시간대에 주거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단 및 환경기초시설 등 악취 배출사업장을 연초부터 대대적으로 점검해왔다.

시는 한달간 악취 발생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90%의 시료를 포집하는 악취 집중행정을 추진해왔다. 46개의 시료를 포집하여 점검한 결과,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7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작년 동월 적발율 4.9% 대비

올해 8월 적발율은 15.2%로 야간에 악취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하는 사업장에 강력 대응했다. 더불어 악취상황실 24시간 운영과 스마트 악취측정차로 성분분석을 통한 악취 발원지 역추적 단속은 최첨단 악취진단행정을 펼쳤다. 이는 악취행정 선진사례로 전국의 지자체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 한해 악취 도시오명을 벗어난던 사업장으로 삼아 내년에도 야간악취 집중 단속 기간을 6~10월로 연장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익산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세종자원순환축제 동아리 경진대회 'KGYC 다사랑' 최우수상

군산시는 지난 3일 진행된 제1회 세종자원순환축제 동아리 경진대회에서 군산청소녀수련관(관장 이원영) 소속 청소년 창의융합동아리 KGYC 다사랑이 최우수상(세종특별자치시장상), 청소년 환경동아리 '오션피스'가 장려상(테트라팩대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KGYC 다사랑은 청소년 창의융합동아리로 과학과 공학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상상과 제안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와 자원을 주제로 과학의 발전을 통해 지구를 회복시

키는 의미를 담은 환경캠페인 영상을 제작했다.

또 '오션피스'는 군산청소녀수련관 환경동아리로 바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청소년 환경동아리로, 선유도 비치코밍을 통해 우리의 선택이 바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환경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군산청소녀수련관은 지난 2021년 제3회 세종자원순환축제 동아리 경진대회 장려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으며, 환경을 주제로 동아리 활동, 청소년참여활성화사업 등 다양

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정원지 청소년(KGYC 다사랑 회장)은 "과학의 발전이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만들어주는 대신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하지만 우리 모두 지구를 위해 새로운 생각과 제안들을 모은다면 지구를 다시 깨끗하게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원영 관장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제안과 창의적인 생각과 상상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서민경제 활성화 위해 성수물품 할인행사

익산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성수물품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농·축·수산물에 적용하는 20%~30% 할인 혜택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내 대형마트 3개사와 로컬푸드 직매장(어양동, 모현동) 등이 참가한다.

할인 혜택은 추석 성수물품인 농산물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에 적용된다.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성수물품을 오프라인으로 구매 시 20%~30%까지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로컬푸드의 경우 최대 15만 원을 구입하면 최대 3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동행 세일기간인 오는 7일까지 구시장 개별점포 세일행사가 개최된다. 구시장 19개 점포가 참여하는 동행세일 행사는 정육, 채소 외에 음식(국밥 등)도 포함된다.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화폐 다이로움 이벤트도 진행된다.

시는 전통시장 11개소(전통시장 등 룯가맹점)에서 오는 12일까지 다이로움 3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추첨을 통해 1천명에게 다이로움 포인트 1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물가급등에 따라 체감물가를 낮출 수 있도록 익산사랑상품권 다이로움 최대 20% 할인혜택을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준공

군산 전통시장이 새단장을 하고 군산 시민들에게 찾아왔다.

군산시는 6일 전통시장 2개소(역전종합시장, 명산시장)에 대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역전종합시장은 그동안 노후된 천막 비가림 시설로 화재에 매우 취약함과 동시에 휴식기 공기순환이 어려워 시설보수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를 통해 20억원의 예산으로 길이 210m, 폭 4m의 역전시장 노후된 천막 비가림 시설을 철거하고 신식 비가림막을 1,920.63㎡ 규모로 설치했다. 또한, 명산시장에 8억원의 예산으로 길이 82m, 폭 6m로 신식 비가림막을 704.58㎡ 규모로 설치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군산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접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군산에 영업신고(또는 지위승계)후 2년이 경과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15개 업소이며, 신청기간은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다.

다만 영업자의 주소가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중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호프 형태의 일반음식점, 국제·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입식테이블 설치, 노후된 주방·화장실 등의 위생시설 개선, 바닥 및 벽면 등의 환경개선 비용 등으로 업소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시설개선지원 사업비의 30%는 업소 자부담이 필요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2년 음식접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고,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